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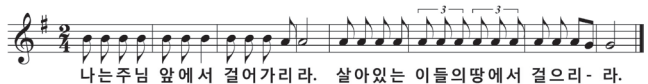
작품 : 이상배 미카엘 (민락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50,5~9느

화답송 시편 116(114~115),1~2.3~4.5~6.8~9 (©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1.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2.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3.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

없는 나를 구해 주셨네. ◎

4.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2독서 야고보서 2,14~18

복음환호송 갈라 6,14 참조

◎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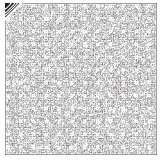
복음 마르코 8,27~35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우리들의 자리



병원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다시금 그들을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병원이란 무엇일까요? 임상이 풍부한 의료진, 최신 의료장비,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진료 지원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병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 좋은 병원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열리는 병원 문이 누군가에게는 열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병원'은 넘쳐난다 할지라도, 있고 없음을 가려 사람을 진료하고, 사람에 따라 진료의 프로세스가 달라진다면,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병원은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르 8.29) 오늘 복음에서의 질문은 세상을 사느라 분주한 우리에

게 다시금 신앙인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되물게 합니다. 인명사전에 등재된 고유명사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묻는 이 질문의 정직한 요구는 바로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로 확장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일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왔는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살아냄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에 동참한, 세상에서의 좋은 사람들이자 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없음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며, 나에게 맞고 맞지 않음에 억눌리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사랑하고 적극적 동감하며 상대에게

필요한 연민이 되어주려는 신앙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으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들’(루카 7.47 참조)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 이 한 줄의 대답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과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영만
세례자요한 신부
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올곧게 앉아서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런 새벽이 참 좋습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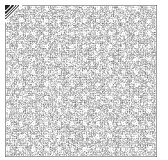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9.17(월)~18(화)
조영만 신부(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9.19(수)~22(토)
박상훈 신부(장유대청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9.19(수) 본당 리포터
출연 : 김철현 라파엘(광안성당)
9.20(목) 퀴즈 포인트, 성경에서 온 그대 - 사무엘기 5편
출연 : 김종이 신부,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9.2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리 찬양사도 출연 : 하늘바라기



이사 온 첫날 밤에 딸이 꿈을 꾸었다고 했다. 가슴까지 덮은 이불을 들추고서 산발한 귀신이 목을 쭉 내밀더라는 거다. 꿈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꿈 얘기를 할 때 딸 표정도 다시 파랗게 질렸다.

그런 식의 꿈을 이사한 후에 더러 끈다는 믿건 말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에 내심 걱정이 되었다. 비슷한 꿈을 또 꾸면 어쩌나 해서다. 고심하던 머릿속으로 구원자가 떠올랐다. 바로 성수였다. 이보다 나은 대치는 없다는 확신으로, 딸 방과 다른 방까지 구석구석 뿌리며 중얼중얼 기도했다. 방마다 성모상과 묵주도 비치했다. 후로는 다행히 그 같은 꿈을 꾸는 일은 없었다. 성수와 성모님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우리 집에는 성모상이 네 개 있다. 딸이 꿈을 꾸 후 서둘러 방마다 하나씩 모셔 두었다. 거실에 둔 성모상은 키가 30cm 정도의 일반

적인 은혜의 성모상이다. 다른 성모상은 이래저래 상처 입었는데 이 성모상만 온전하다. 바라만 봐도 평온해지는 표정이다.

딸 방에 둔 갈색 성모상은 대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손자가 떨어뜨려 가슴팍에서 두 동강이 났다. 나는 그때 사람이 다친 양 비명을 지르곤 접착제로 붙여 놓았다. 그 후 같은 곳이 또 부러져 땀질했다. 어깨를 앞으로 살짝 수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늙은 내 어머니를 연상케 한다. 표정은 어쩌나 정결하고 해맑고 여린지, 오히려 보듬어 주고 싶은 성모상이다.

안방 성모님도 목부터 어깨죽지까지 땀질 흔적이 있다. 역시 손자들 손에 떨어져 다쳤다. 잠자는 머리맡에 둔 성모상은 조그맣고 낡고 볼품없다. 언제 부러졌는지 조그만 손 하나가 부러져 나가고 없다. 그러나 이 성모님은 잠자는 나를 지

켜주고 빛으로 당신 존재를 알린다. 야광 성모상이다. 밤중에 잠이 깰 때 환히 빛나는 형체에 눈이 닿으면 두 손을 모으거나 성호경을 긋고 자리에 눕게 된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게 아니라 주모경을 외게 하는 성모님.

성모상을 한자리에 모아 오랜만에 먼지를 닦는다.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나 닦친 큰일 앞에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 무력할 때 묵주와 함께 찾는 우리 집 성모님들.

내 능력 밖의 지혜가 필요할 때나, 잠시 옆길을 걸을 때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인도하는 성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 김 나 현 가브리엘라

사직성당 • 수필가 yanni33@hanmail.net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을 맞이하여

3. 순교영성을 본받으며

순교는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좀 더 순교의 광의적 의미를 찾는다면 비록 피는 흘리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복음적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백색순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오랫동안 냉담 생활을 하며 쉬고 있다. 과거 박해시대처럼 희광이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배교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여가활동의 증가로 세속문화의 유혹들이 그 원인일 수도 있겠고, 제도교회의 구조와 현대인들의 의식 사이의 갈등이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목

자들의 모습이 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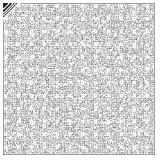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신자들의 개인적 사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척이나 지인들의 관혼상제, 부부, 가족 사이의 갈등, 동호회 혹은 취미활동의 모임, 환자의 병간호나 여행, 그 외에도 고백성사의 부담감 등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주일미사를 빠지게 하고, 한번 두번 주일미사를 빠지다가 결국 냉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현대적 의미의 박해와 배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현대적 의미의 박해들을 극복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어떤 일보다도 내 신앙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현대적 의미의 순교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순교선열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 현대의 순교 정신을 이어 가야 하겠다.

■ 전수홍 신부(오률탈대순교자성지사목) jubo@catb.kr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수기" 세상에 건넨 작은 인사 : 임마누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4박 5일의 작은 순례인 KYD(한국청년대회) 주제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KYD가 열린 올여름은 참 잔인한 날씨였고 더욱이 부산보다 훨씬 더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니!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갈증을 느꼈었고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소해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떠나기 전 발대미사 때 신부님께서 “우리는 하느님 빵을 나누는 식구입니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식구’가 되어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KYD 기간 내내 힘들었다는 것보단 행복하고 또 행복해서 ‘여기가 천국일까?’란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순교자 발자취를 따라 도보순례를 할 때,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느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 명동성당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열정의 축제가 열린 것, 청년콘서트를 통해 우리의 고민을 서로 공감하고 찬양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 우릴 위해 떼제마을에서 오신 신부님들과 함께 나 자신을 하느님께 오롯이 내어드렸던 떼제저녁기도까지!

요즘 세상은 참 힘들고 또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사회는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만 인생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완벽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는 방법, 주님과 함께 행복을 찾는 방법,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나를 가지는 방법들에 어설픈 것만 합니다. 전 이 대회를 통

해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고 이미 잊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든 저를 살리시고 제 두 다리를 절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쉬고 있는 제 청년 형제자매들이 다시 하느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저희와 같이 기쁨으로 뛰고 슬픔은 나누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공동체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한 그 린 미카엘라
개음성당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매일 합니다만, 실은 어떤 것이 내 뜻이고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을 피조물, ‘지음을 당한 사물’로 고백합니다. 그 반대말이 창조주, ‘지음을 시작한 주인’이지요. 엄밀히 보자면 지음을 당한 존재가 지은이의 뜻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책상이 목수의 뜻을, 작품이 작가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작가더러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지금도 모르고, 나중에라도 모를 수 있고, 심지어는 하느님 품에 안기고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될 일도 적

잖겠지만, 아버지의 뜻은 분명 짧은 내 머리로, 좁은 내 시야로 생각한 내 뜻보다는 더 좋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이란 고백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관련하여 성모님의 태도는 커다란 모범입니다. ‘주님의 뜻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곰곰이 간직하는 모습과, 어찌 되든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니 따르겠다는 신념, 그리고 나를 도구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철저한 내맡김까지, 짧은 문장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일 겁니다.

■ 홍경원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중앙성당, 본당 설립 70주년 감사미사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특별히 미사 중에 68년(윤병례 글라라, 정자연 아가다), 65년(길옥명 루시아, 김옥순 데레사) 동안 본당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한 신자에게 '본당 지킴이 상'을 수여했다.

올해 본당 설립 70주년을 맞은 주교좌 중앙성당(주임 : 이성균 신부, 회장 : 김영준 요셉)은 지난 9월 9일(일) 11:00 손삼석 주교의

또한 7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17일(월) 19:30 성전에서 본당 신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7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제 연수



지난 9월 11일(화)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교구 사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새 의료법 시행에 따른 사목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 주제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날 행사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 김영규 신부)는 지난 9월 7일(금)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로'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삼석

주교를 비롯한 지역 각계 인사, 교직원 등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였고, 총장 인사, 축사, CK-1 사업단 및 LINC+사업단 성과발표, 비전 발표, 발전기금 전달식, 축하공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 학교가 걸어야 할 길은 쉽지 않지만, 총장 신부님이하 교직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교자 현양 음악회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오륜대 순교자성지(담당 : 전수홍 신부)는

순교자 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0일(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전에서 '순교자 현양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부산가톨릭음악협회 소속 9개 합창단이 출연했다. 행사를 기획한 전수홍 신부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아름다운 음악으

본당의날 축하합니다!



9월 1일(토)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주임 : 김기태 신부, 박정용 신부
회장 : 손영춘 레오



9월 2일(일)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열차 성지순례
주임 : 이기정 신부, 회장 : 이방식 마리오셀



9월 6일(목) 본당 설립 60주년 기념 은혜의 밤
주임 : 박상대 신부, 회장 : 박순호 프란치스코



9월 7일(금) 본당의 날 기념 한마음음악회
주임 : 김근배 신부, 회장 : 강현인 사도요한



9월 8일(토)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
주임 : 김두유 신부, 회장 : 고택환 안드레아

로 승화시켜 하느님을 찬양하고,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교용 · 선물용

2019년

교구 탁상용 달력 보급



* 주제 전례시기에 맞춘 제대꽃

■ 신청방법 교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에서 <천주교부산교구 탁상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3,000원 / 1부

■ 보급방법 12월 초, 본당에서 수령

■ 입금계좌 (입금자명: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농협 301-2018-0726-51 천주교부산교구

■ 문의 051-629-8752 (전산홍보국)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9.17(월) 10:00(목주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8(금) · 전주교구 전동성당
문의: 629-8760(성소국)

9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울산] 9.30(일) 14:00~17: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3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052)201-6505, ulsan_cath.kr(울산대리구)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13(토)~11.10(토) 매주 토요일 15:00~21:00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무관)
접수: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010-3460-0696, 010-6408-6111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1(목)~11.8(목) 매주 목요일 10:00~15:00
(5주 과정) · 부산가정성당
대상: 자녀를 둔 어머니 (종교무관)
접수: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010-9907-1767, 010-2202-0470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교회 후원회 미사

· 9.17(월) 12:00 · 선교회 3층 성진
주례: 박성태 신부 / 문의: 464-3909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울산: 9.17(월) 19:30 야음성당 / 강의: 차광준 신부
주제: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문의: 465-9508 / 무료 강의와 미사

해양사목 월미사

· 9.17(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이균태 신부 / 문의: 464-2707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9.20(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김창환 신부(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성당)
울산: 10.12(금) 10:00 옥동성당
주례: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기념미사

· 9.20(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손삼석 주교 / 문의: 515-0030

부산ME 소개모임

부산: 10.1(월) 20:00 남천성당
울산: 10.7(일) 14:30 복산성당
361차 ME주말: 10.12(금)~1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성서교육원 젊은이 성서사시주간(1년과정)

· 10.1(월)부터 매주 월요일 20:00~22:00
· 초량 성서교육원 3층 / 대상: 30대~40대
회비: 신·구약 5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가톨릭사진가협회 회원 모집

대상: 사진을 통한 전교활동에 관심 있는 분
신청: <https://cafe.naver.com/kcpcpa>
(NAVER에서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검색)
문의: 010-3881-5113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9.17(월) 19:30 전포성당
· 9.1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월미사
· 9.17(월) 11:00~15:10
미사, 도유와 안수
- 수요 치유기도회
· 9.19(수) 11:00~16:00
· 9.26(수) 추석 휴회
- 철야기도회
· 9.21(금) 22:30~22(토) 04:00
강사: 변지안 자매
· 9.28(금) 22:30~29(토) 04:00
강사: 김기욱 신부(구포성당 부주임)
- 청소년 기도회
· 9.23(일) 추석 휴회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주간(54일)기도
· 10.3(수)~11.28(수) 매주 수요일, 버스 운행
회비: 2만원(기도서, 봉헌초 포함)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9.17(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9.18(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및 단원모집

· 9.18(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임석수 신부 / 지휘: 최금화
입단문의: 010-3077-3217(단장 황광호)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9.19(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입단 문의: 010-7339-8545

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9.19(수) 10:30 · 사직성당
연주: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주례: 임석수 신부 / 문의: 010-8545-6504

전례꽃꽂이연구회 마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추석 관례로 월미사, 월례회 없습니다
문의: 010-4554-1173, 010-2556-6380

부산교구 공원모지 하늘공원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 24일(월) 11:00 봉안당 내 경당

▶ 추석 당일은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055) 374-8732~3

(주)씨피여행사

1. 10/2 동유럽 성지순례 12일 잔여 6석
2. 12/7 이태리주 9일 선착순 LH275만원
(지도신부님: 안현철 / 이태리 신부님)
3. 11/12 제주성지순례 3일(2인1실) 36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도로연수

경찰청 지정 전문화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중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중(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오두중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타와 맞은편 우리은행 5층

하은한의원

HAEUN NATURE MEDICINE
한방성형 · 암 · 디스크
원장: 이상미 (대대레사)
010-5519-0959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 5 (남천동)

50년 전통 명신당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목(바오로) 김영민(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뉴욕플란트치과

임플란트, 틀니, 심미치료
원장: 송현열 (가브리엘)
미국 뉴욕치대 유학
634-2828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0번 출구 바로 앞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가톨릭여행사

10/15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원
11/8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395만원
11/26 멕시코 페루 쿠바 12일 595만원
(02) 319-2533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력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과 이상열(베드로)
516-0888

가톨릭센터 무료 일일영화피정 <요셉>
 · 9.19(수) 13:20 · 가톨릭센터 소극장
 내용: 강의와 영화관람 그리고 나눔의 시간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51.20평)
 문의: 462-1870(행정실)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신심피정
 · 9.17(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박상대 신부(온천성당 주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1주년 기념 봉헌 미사
 · 10.11(목) · 고성군 종합 운동장
 회비: 2만 2천원(교통비, 식대, 생수 포함)
 문의: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한국본부)

가톨릭마린톤회 제12회 시복사성 성지이여달리기
 · 9.30(일) / 문의: 010-3874-0069
 · 김범우순교자성지~오른대순교자성지(60km)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9.18(화) 10:00 · 이기대성당
 · 9.21(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9.1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9.20(목) 11:00 · 남천성당 대성당
 주례: 이흥기 몬시뇰 / 문의: (055)353-6597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9.21(금) 14:00~17:00 · 성본도 은혜의 집
 주제: 예수! 우리 주님, 우리의 빛
 강사: 한현배 신부 / 문의: 010-9344-3843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9.30(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왕영수 신부 / 신청: 9.26(수)까지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비나(성독) 월모임
 · 9.29(토) 10:00~17:00 ·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1만 5천원 / 준비물: 성경, 미사 준비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렛)

꿈을 통한 자기내면 여행
 개강: 10.1~12.3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무의식의 자기 통합작업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초원의집 입소자 모집
 대상: 65세이상 건강한 여자어르신
 가톨릭 신자 우선 / 문의: 582-1562

바이블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연수
 · 10.9(화) 10:00~17:00 · 서면성당 샌다 3층
 교육실 / 교육비: 6만원 (교재, 중식 포함)
 내용: 성경 활용 프로그램 및 소재목 필사
 문의: 010-3845-8599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청소년, 성인, 부부(비신자 포함)
 내용: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 1급)
 상담: 화~토 10:00~17:00 / 문의: 581-3114

한티순교성지 피정
 · 9.29(토) 10:00~30(일) 11:00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침묵피정)
 강사: 여영환 신부(한티순교성지)
 문의: (054)975-5151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9.30~10.2, 10.4~7, 10.10~12, 10.16~19,
 10.24~26, 11.2~4 / 대상: 개인, 가족, 분당단체 등
 내용: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064)796-9181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피정: 10.3(수)~6(토) / 회비: 28만원
 성경통독피정: 11.3(토)~11(일) / 회비: 48만원
 문의: 010-3340-0201, 010-4993-4394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0.29(월)~11.13(화) · 서유럽, 발칸
 · 11.22(목)~12.5(수) · 서유럽, 스페인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무료교육
뇌성마비(발달장애)아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지도교수: 안소윤 본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9/19~10/24 수요일 16:30~17:30 (총4주)
 문의: 510-0951~3, edu.cup.ac.kr
 입학처: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부산성모병원 신경과는 남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등 진단 지원,
 기본 혈액검사, 심전도, 뇌 CT)
문의: 933-7957 (부산성모병원 신경과)
"부산성모병원은 강동으로 다가갑니다"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요한 묵시록 9/17(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진흥관C&C)
 바티칸이 추천하는
 더 바이블 시리즈 중 '요한 묵시록'편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보시는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 010-3862-6834

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

성가병원
 손·발 증점 진료
 정형·수부외과 전문의
 김우식 (알렉산델)
 위, 대장 내시경 전문의 이동건
 지하철 1호선 범일역 9번 출구
645-9771~5

해충 방역 소독
악취완전제거
 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바이빅스)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방문일정
 19년 4/2 (429만원, 인솔자 동행)
가톨릭트래블
 www.catravel.co.kr
070-4086-0207

고운세상 김양재 피부과의원
 (피부과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 JCI 인증 획득)
 원장: 김양재 (다미아노), 성재영, 정봉석, 조현호
 www.doctorkim.com
805-1004
 서면 주디스대학에서 분내골병원 50m, 올리브영 5층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

요로결석 24시간 응급치료가능
전립선 / 소아여성비뇨 / 남성수술
SNU서울비뇨의학과
 서울대비뇨기과전문의, 박정민 가브리엘
714-1725

부산최초제초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인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글라리아)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8번 출구(3층, 빨간색 간판)